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 예배
 열왕기상 12:28-30
 2025년 1월 19일 오전 11시

복을 저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

< 주여 도우소서 >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홀으리로다”(창 49:5-7). 허나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꿉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와 그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출 32:26-29).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저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열 두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사울 왕조는 2 대만에 끝이 납니다. 솔로몬 역시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렉에게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우상숭배로 나라를 신하에게 빼앗깁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백성들은 학정에 시달렸습니다. 이방 여인들에 빠진 솔로몬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왕상 11:7-8). 솔로몬은 천 명의 아내들을 위하여 천 개의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당시에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 큰 공사입니다. 아무리 작은 신당 공사라 할지라도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과 많은 국고가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현대 한 두 개도 아니고 천 개를 지었으니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모두 공사 현장에 동원되어 노역을 하였고, 나라의 공간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에게 가벼운 멍에를 요구한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왕상 12:4). 허나 르호보암 왕은 포박한 말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14 하반절). 그리고 백성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기 위하여 노동 감독관을 보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18 절).

그러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노동 감독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20 절). 왕이 되기 전 여로보암은 지파 감독관이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위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왕상 11:28). 큰 용사로 부지런하였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요셉 지파 감독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전체 감독관 아도람 밑에 열 두 명의 지파 감독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현대 여로보암은 다른 지파 감독관과 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감독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감독관 아도람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출세하였습니다. 총 감독관 외에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 여로보암이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왕상 11:29). 여로보암을 만난 선지자 아히야는 자신의 새 옷을 열 두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왕상 11:30). 그리고 열 조각을 가지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왕상 11:31). 이스라엘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믿기 힘들어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차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왕상 11:37). 그리고 여로보암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왕상 11:38).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함께 하시고 여로보암 왕조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열 지파를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야곱이 요셉에게 유산으로 준 땅 세겜을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왕상 12:25). 그러나 얼마 후 요단 동편 부느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던 브니엘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전쟁을 계획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십팔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21 절). 특이한 것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사울 왕조의 적통인 사울 왕의 손자인 므비보셋의 아들 미가가 왕이 되어 사울 왕조를 회복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현대 백성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를 따르기보다 다윗 왕조를 따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여하튼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택한 용사 18 만명을 이끌고 세겔으로 쳐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현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24 절).

이렇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간에 전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간에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왕상 14:30).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자,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세겔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인 브니엘로 도성을 옮긴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자신의 망상에 빠집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왕상 12:26).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왕조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피해망상에 빠집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왕상 12:27).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28 절). 그리고 남쪽 국경선 뻘엘과 북쪽 국경선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뻘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29 절). 이렇게 여로보암은 백성 전체를 우상숭배의 길로 끌어들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30 절). 또한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31 절). 나아가 제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었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뻘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뻘엘에서 세웠더라”(32 절).

이같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답은 신하 바아사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왕상 15:28-30).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될 수 없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죄를 짓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만듦으로 저주를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주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불신함으로 복과 은혜를 저주와 재앙으로 변질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